

월간미술

2023 08

뮤지엄에서의 게임 그리고 플레이

463

우수콘텐츠잡지
2023

월간
미술

463



August 2023

since 1976

박지나 동쪽에서 뜨는 달

디스위켄드룸 6.9~7.15

노재민 | 기자

적확한 한글 번역어가 없는 '분더컴머(Wunderkammer)'는 진귀한 물건을 수집한 자신만의 방을 일컫는 독일어다. 16~17세기 유럽 지역의 왕실 및 귀족 가정에서 유행했고, 소유자의 취향, 권력, 재력, 지식 등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박물관의 전신이기도 하다. 박지나가 2018년부터 시작한 이른바 '콜렉터스룸(Collector's Room)' 프로젝트는 베를린 골목길을 산책하던 중에 주택가 창가 장식을 보게 된 일이 계기가 됐다. 그 창문은 그 집에 거주하는 개인의 취향과 자신의 세계를 말없이 외부에 드러내고 있었다.

작가는 제국주의의 흔적이 남은 공간을 찾아갔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각 나라의 유물을 마구잡이로 강탈한 후 본국으로 가져가서 전시한 박물관, 물건에 그치지 않고 동물이나 식물까지 수탈하여 문물 연 동물원 및 식물원을 직접 방문한다. 그는 고전 유물, 동물, 식물 등의 이미지를 수집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분더컴머를 미러링(mirroring, 거울처럼 모방하는 행위)해서 약탈되었던 것들을 다시 약탈한다. 재배치된 각종 고전 조각 및 동식물은 캔버스 안에 갇혀 전시되고,

만약에 그림이 팔리게 되면 다른 수집가의 컬렉션에 소장되어 소장가의 분더컴머로 이동하게 된다.

박지나는 수집한 이미지들을 화폭에서 콜라주하고 재조합하는데, 예그 템페라 물감으로 두껍게 쌓은 3차원 공간은 어딘지 미묘하게 평평하다는 느낌을 준다. <Battle Between a Cantaur and a Lapith>에서 해가 조각에 비해 비현실적인 만큼 크게 묘사되어 실제 크기와 거리를 가능하기가 쉽지 않고, <The Palace of Curiocities>에서 맹수나 뱀의 감정을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공간에 한데 어우러져 긴장감을 주지만, 무언가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때분해 보이기도 하며, 제멋처럼 호기심에 충만한 상태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The Collector's Garden>은 어디까지가 정원 안이고 밖인지 공간의 정확한 상태가 분간되지 않고, 어떠한 도상이 중심이고 되고 배경이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시간대를 특정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고전 그림을 배울 때 각 도상이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고 외웠지만, 명확한 것 없이 나열된 모호함은 기존의

태도에 제동을 가하고 멈춰 세워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 오브제는 작가의 즉흥적인 배치에 의해 우연한 서사가 만들어지고, 각각의 도상은 관람자의 학습된 취향 또는 생각에 따라 그림 안에서 변화무쌍하다.

해가 어느 방향으로 뜨고 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그 답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달은 어디서 뜨고 질까? (그 답을 아는 일반인 혹은 지구과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항상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해와는 달리, 달이 뜨고 지는 방향은 지구의 위도와 계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해는 항상 동그런 모양으로 보이지만, 달은 주기적으로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그믐달이 되면서 그 모양을 달리한다. 이때, 북반구에 거주하는 사람과 남반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보는 달의 모양은 반대이다. 즉 달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인간이 북반구에 있는지 남반구에 있는지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달처럼, <동쪽에서 뜨는 달>은 관람자의 세계관에 따라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변한다. ●



왼쪽 위 <The Palace of Curiocities> 캔버스에 템페라

120×140cm 2023 제공: 박지나, 디스위켄드룸

아래 <The Collector's Garden I> 캔버스에 템페라 120×200cm 2023

제공: 박지나, 디스위켄드룸

오른쪽 <Battle Between a Cantaur and a Lapith>(사진 왼쪽)

캔버스에 템페라 120×110cm 2023

<박지나: 동쪽에서 뜨는 달> 디스위켄드룸 전시 전경